

## 화법 강의자료 : ‘담화의 구조’에 따른 필연적 선지 구성의 이해



- 핵심 목표 : a. 담화 구조의 패턴화
- b. 상황에 따른 담화 수행자의 말하기 방식의 패턴
- c. 구조와 말하기 방식의 규칙화를 통해 구성되어야 하는 선지 예측

※ 본 자료의 저작권은 <김승리 국어 연구소>에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아닌, 기업이나 개인이 무단 사용 및 게재 시  
강력하게 제재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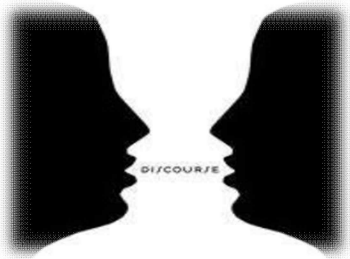
## ‘화법은 수능 시험 시작의 시작이다.’

### ☞ 화법을 대체 왜 따로 공부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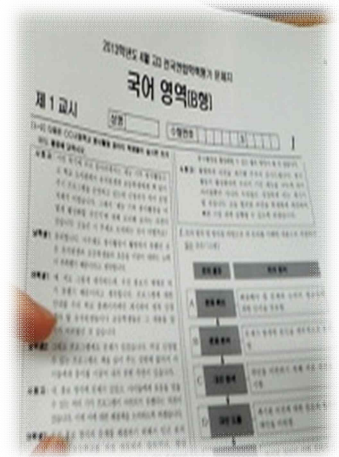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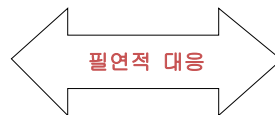
화법은 수능 1교시인 국어 영역의 시작 지점입니다. 따라서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영역이죠. 화법이 ‘어려워서’ 틀리는 학생은 없습니다. 화법을 틀리는 경우의 대다수가 긴장감으로 인해 ‘글이 잘 안 읽혀서’입니다. 13주차에서 쉽고 쉬운 화법을 굳이 다루는 이유는 1교시의 시작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담화 상황별로 나타나는 구조의 패턴을 이해하고, 여기에 맞게 갖추어야 하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확립해야 합니다. 나아가 담화 상황에 따라 담화 수행자의 말하기 방식을 패턴화하고, 문제의 선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주어진 지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어떤 문항과 선지가 구성될 수 있을지 예측 가능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1교시를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

### ☞ ‘담화(Discourse)’란 무엇인가?



담화는 그 의미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든 상황’이 곧 담화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구분해보면 ‘공적인 담화’와 ‘사적인 담화’로 분류할 수 있고, 수능 국어에서는 이를 ‘토론·토의·발표·협상·면접(인터뷰)·연설·대담’과 ‘대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담화는 곧 ‘발화’이기 때문에 전개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사실상 무한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수능에서는 담화의 구조를 상황별로 일정 수준 규격화했기 때문에 담화 상황별로 일정한 구조를 갖습니다. 비문학에서도 그랬듯이 화법 역시 구조에 따라 구성되는 문항이 지문과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우리는 담화 상황별로 갖게 되는 ‘일반적인 구조’를 익힐 것입니다.

모든 담화는 ‘목적’을 갖습니다. 당연히 담화 상황별로 그 목적 역시 다릅니다. 특정 담화의 목적은 담화 수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방식으로 발화하느냐에 따라 목적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질 수 없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하기 방식’은 기존에 출제된 선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발화자의 특정 표현과 선지의 대응 관계를 규칙화시켜야 합니다.



[1~3]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6\_6\_B)

사회자 : 지금부터 '청소년의 팬덤 활동은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 입론을 하신 후 반대 측에서 반대신문을 해 주십시오.

찬성 1 : 저희는 팬덤 활동이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팬덤'은 특정 인물이나 분야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팬덤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친구와 관심사를 공유하고 인간관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공연장이나 경기장에서 스타를 응원하며 삶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팬덤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과 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팬덤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요즘 팬덤은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문화 운동을 하고 있어 청소년들은 팬덤 활동을 하며 문화 실천의 주체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좋다고 솔직하게 표현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의 모습,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반대 2 : 방금 조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의 출처가 어디가요?

찬성 1 : 국내 유명 팬덤인 햇살 팬클럽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반대 2 : [A]

찬성 1 : 저희는 자료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을 하신 후 찬성 측에서 반대신문을 해 주십시오.

반대 1 : 저희는 팬덤 활동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는 첫째, 팬덤은 다른 팬덤에 대해 배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팬덤 활동을 하면 인간관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협한 이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찬성 측에서는 팬덤 활동이 청소년에게 만족감을 준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스타에 대한 과도한 몰입이자 일종의 중독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팬덤 참여자는 스타를 맹목적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문화 실천의 주체가 아니라 단순히 스타와 관련된 문화 상품을 소비하는 수동적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최근 연하의 스타에게 열광하는 이모 팬덤, 삼촌 팬덤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도 저희가 팬덤 활동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찬성 1 : 중독을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하신 거죠?

반대 1 : 중독은 어떤 대상에 너무 깊이 빠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찬성 1 : 그러면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도 팬덤 활동을 열심히 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반대 1 : 중독된 청소년도 많을 겁니다.

- 토론의 특징

- ☞ 토론은 어떤 주제에 대해 주장하는 말하기로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뉘는 주제에 대하여 각각 서로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근거를 들어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말하기입니다.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토론의 주제(논제)**', '**토론자**', '**사회자**', '**토론 규칙**'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청중'이 개입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 ☞ 토론은 기본적으로 토론자들이 대립적인 관계를 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서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문 내에 양측이 동의하거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공통 인점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토론의 일반적 구조

[논제 제시] → [발언 순서 지정] → [입론] → [반론]

- ☞ '논제'는 늘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논제의 이탈**'과 관련하여 선지가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 입론과 반론의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져야하기 때문에 찬성 측에서 먼저 입론을 했다면, 반드시 뒤에서는 반대 측에서 입론을 해야 합니다.
- ☞ 보통 입론과 반론, 혹은 찬성 측의 입론과 반대 측의 입론은 서로 대립 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개 대립 관계는 '**주장의 근거**'끼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토론 수행자의 일반적 말하기 방식

- ☞ 사회자 : 논제 제시, 토론 배경 제시, 토론자들의 발언 요약 & 쟁점 정리, 발언 순서 지정 등
- ☞ 토론자 : 자신의 주장과 근거 제시, 상대측 주장 반박

< 해당 담화 분석 >

- => 사회자의 논제 제시 → 찬성 측의 입론 → 반대 측의 반론 → 반대 측의 입론 → 찬성 측의 반론
- => 출제될 수밖에 없는 부분 : 반대 1의 입론 중 논제에서 이탈한 내용이 존재함.
  - ☞ '논제' : '**청소년**의 팬덤 활동은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
  - ☞ 찬성 측의 입론과 반대 측의 입론에 드러난 주장의 근거가 3:4의 관계를 형성 (개수가 1:1 대응되지 않음)
  - ☞ 반대 측 입론의 근거 4 : '**이모 팬덤, 삼촌 팬덤**~'
  - ▶ 논제 이탈 - 반드시 문제화가 이루어짐!

1. 토론의 맥락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물음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강조하는 발화이다.  
=> '~ 않습니까?'에서 물음의 형식을 확인할 수 있고, 청소년의 팬덤 활동이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므로 적절합니다. (정답)

② 실제 사례를 근거로 들어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는 발화이다.  
=> 실제 사례를 든 적은 없으므로 부적절합니다.

③ 자신이 사용한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발화이다.  
=>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언급한 적도 없고, 물음의 형식을 활용했으나 '상대방의 의견'을 묻기 위해 물음의 형식을 활용한 것도 아니므로 부적절합니다.

④ 상대방의 견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발화이다.  
=> 상대방의 견해를 일부 인정할 적이 없으므로 부적절합니다.

⑤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요구하는 발화이다.  
=>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것도 아닐뿐더러 상대방에게 답을 요구하기 위해 물음의 방식을 활용한 것도 아니므로 부적절합니다.

2. <보기>는 토론 전에 실시한 반대 측의 협의 내용의 일부이다. '찬성 1'의 발언과 <보기>를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반대 1 : 반대 신문은 어떻게 하려고 해?  
반대 2 : 음, 만일 찬성 측이 자료를 제시한다면 먼저 그것부터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  
반대 1 : 어떤 식으로?  
반대 2 : 자료의 출처가 불확실하다면 자료의 신뢰성을 문제 삼아야겠지. 또 자료가 편파적일 수 있다면 그 점을 부각하려고 해.

**지문과의 대응지점**

찬성 측에서 제시한 자료는 '팬덤인 햇살 팬클럽'에서 조사한 자료이므로 팬덤 활동이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찬성 측의 주장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가 편파적일 수 있습니다. (출처는 확실합니다!)

①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자료를 신뢰할 수 있나요?  
=> 출처는 '햇살 팬클럽'으로 명확히 드러나므로 부적절합니다.

② 그 자료는 저희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오히려 찬성 측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부적절합니다.

③ 그것은 최근에 조사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실과는 안 맞지 않나요?  
=> 찬성 측의 자료는 '최근의 조사'에 따른 것이므로 부적절합니다.

④ 그 자료는 팬덤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닌가요?  
=> '팬덤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과 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했으므로 부적절합니다.

⑤ 팬덤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조사한 것이라면 그 자료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 (정답)

3. 다음은 배심원이 작성한 평가표의 일부이다. 평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계	평가 기준	토론자	평가 내용
입론	주장에 대한 근거가 타당한가?	찬성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구와의 관심사 공유, 인간관계의 확장은 팬덤 활동의 긍정적 측면을 제시한 것이므로 타당함.....①</li> <li>문화 실천의 주체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은 팬덤 활동의 긍정적 측면을 제시한 것이므로 타당함.....②</li> </ul>
		반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팬덤 활동의 배타성, 스타에 대한 맹목적 숭배는 팬덤 활동의 부정적 측면을 제시한 것이므로 타당함.....③</li> <li>이모 팬덤과 삼촌 팬덤이 사회적 불의를 일으켰다는 것은 논제에 부합하는 부정적 사례이므로 타당함.....④</li> </ul>
반대 신문	상대의 논리적 문제점을 적절하게 지적했는가?	찬성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대방이 사용한 '중독'의 의미를 팬덤 참여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음을 지적한 것은 적절함.....⑤</li> </ul>

=> '이모 팬덤과 삼촌 팬덤'은 '청소년의 팬덤 활동'에 해당될 수 없으므로 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④번은 부적절합니다. (정답)

[4~6]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5\_수능\_B)

사회자 : 이번 시간에는, 수필 「강희자전과 감투」를 변형하여 재구성한 상황을 바탕으로 **책방 주인의 이윤 추구 행위가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제시문을 통해 논제와 관련된 상황을 확인하고 **입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쌀을 사기 위해 책을 팔러 간다. 책방 주인은 책값으로 오십 원을 매기며 되팔 때 가격이 칠십 원이어서 오십 원도 높은 가격이라고 강조한다. 몹시 아까던 책을 판 ‘나’는 간신히 칠십 원을 마련해 되사러 가지만 주인은 오백 원에 팔아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나’의 판매 요구를 거부한다.

학생 1 : 책방 주인의 이윤 추구 행위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투자한 것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했기 때문입니<sup>다</sup>. 또한 책값을 결정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이익을 얻고자 했<sup>다</sup>는 점에서도 정<sup>당</sup>하다고 보기 어렵습니<sup>다</sup>.

학생 2 : 저는 책방 주인의 이윤 추구 행위가 정<sup>당</sup>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건 값은 판매 당시의 여건이나 이<sup>윤</sup> 등을 고려하여 결<sup>정</sup>되는 것이지, 구입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sup>정</sup>되는 것이 아니<sup>다</sup>. 또한 가격 결<sup>정</sup>권이 책방 주인에게 있는 대신 ‘나’는 거래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었으므로 대<sup>등</sup>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거래라 할 수 있습니<sup>다</sup>.

사회자 : 이제 양측의 반<sup>론</sup>을 들어 보겠습니다.

학생 1 : ‘나’와 책방 주인이 대<sup>등</sup>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sup>다</sup>. 왜냐하면 ‘나’는 책을 팔 때 절박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선택권이 있을 수 없었기 때<sup>문</sup>입니다. 또한 책방 주인에게 가격 결<sup>정</sup> 권한이 있<sup>다</sup>는 건 인정합니<sup>다</sup>만, 구입 가격의 열 배에 해당하<sup>는</sup> 금액으로 결<sup>정</sup>한 것은 상<sup>식</sup>적으로 적<sup>정</sup>한 이<sup>윤</sup> 추구로 볼 수 없습니<sup>다</sup>. 이<sup>윤</sup> 추구 자체가 부<sup>당</sup>한 것이 아니<sup>라</sup>, 과도한 것이 문제입니<sup>다</sup>.

학생 2 : 책방 주인이 책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나’의 상황까지 고려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매자 각각의 형편에 따라 책값을 달리 정해야 한다는 뜻입니<sup>까</sup>? 그건 합<sup>리</sup>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sup>다</sup>.

학생 1 : \_\_\_\_\_ [가]

< 해당 담화 분석 >

- => 사회자의 논제 제시 → 부당하다 측 입론 → 정당하다 측 입론 → 부당하다 측 반론 → 정당하다 측 반론
  - ☞ 부당하다 측 입론의 근거 1)과 2)가 정당하다 측 입론의 근거 1), 2)와 대립 관계에 서 있음.
  - ☞ 부당하다 측 반론에서 정당하다 측 입론을 반박하자 정당하다 측 반론에서 부당하다 측 반론을 재반박하는 구조
  - ☞ 개수가 정확히 일대일 대응
    - ▶ 논제 이탈 가능성 無

※ “대립 관계에서의 공통 인정선”

=> 우리가 비문학을 공부할 때에 ‘대립 관계’를 맺는 두 대상(혹은 인물) 사이에는 차이점뿐만 아니라 공통점 역시 존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립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토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 ☞ 예를 들어 봅시다. 사형 제도의 존폐 문제를 두고 찬반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한 쪽은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한 쪽은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즉 한 쪽은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 쪽은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 ☞ 그런데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둘 다 공통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를 ‘공통 인정선’이라고 규정합니다!
- ☞ 해당 담화에서는 ‘책방 주인에게 가격 결정 권한이 있다’는 사실과 ‘이윤 추구 자체는 정당하다’는 사실을 부당하다 측과 정당하다 측 모두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문장은 ‘공통 인정선’에 해당되는 것이죠. 역시 ‘토론’에서 자주 문제화되는 부분이니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시다!

4. 위 토론의 논제의 성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어떤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자신의 판단이 더 타당함을 밝혀야 하는 논제이다.

=> '책방 주인의 이윤 추구 행위'의 정당성을 부당하다 측과 정당하다 측에서 판단하고, 양측 모두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정답)**

②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이 더 유용한지를 판단하고 다른 방법과의 절충 방안을 밝혀야 하는 논제이다.

③ 어떤 현안에 대하여 그것이 지닌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할 정책이 필요함을 밝혀야 하는 논제이다.

④ 어떤 상황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 사실 관계가 성립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밝혀야 하는 논제이다.

⑤ 어떤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자신의 주장이 더 유용한 가치가 있음을 밝혀야 하는 논제이다.

5. 토론의 흐름에 따라 상대측을 반박하려고 할 때, [가]에 들어갈 발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책방 주인은 '나'의 상황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며, 알았다 하더라도 책을 사고팔면서 그것을 모두 고려하여 책값을 책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가]는 책방 주인의 이윤 추구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선지는 오히려 책방 주인의 행위를 옹호하고 있으므로 **부적절합니다.**

② 상대측에서 '나'가 책을 팔았을 때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신 것은 논리적인 근거 없이 동정심을 유발하여 설득하려는 것이니 타당하지 않습니다.

=> 상대측('정당하다' 측)은 '나'가 책을 팔았을 때의 상황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으므로 **부적절합니다.**

③ 제가 제시한 방법에 대해, 합리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신 것은 책방 주인의 이윤 추구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 '정당하다' 측은 '부당하다' 측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으므로 **부적절합니다.**

④ 합리성을 고려한다면 책방 주인에게 판매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책값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책을 사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야 합니다.

=> 해당 선지는 '책방 주인'과 '나' 사이의 거래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방 주인의 행위를 옹호하고 있으므로 **부적절합니다.**

⑤ 저는 '나'가 책을 팔고 살 때 책방 주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다고 말한 것인데, 이에 대해 구매자들마다 책값을 달리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한 것은 저의 발언을 왜곡한 것입니다.

=> (정답)

6. 다음은 위 토론에 청중으로 참여했던 학생이 쓴 글이다. ㉠~㉣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사업자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물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다. 따라서 사업자라면 되도록 가격을 높게 책정해 이윤을 높이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지속적인 이윤 창출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1989년 개인 서비스 요금 자율화 이후 설령당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 결국 가격이 내려가게 되었다. 이는 ㉣ 물건의 가격에 대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면 사업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가? ㉤ 물건의 가격만 높여서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하기보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 가격을 책정하여야 한다.

① ㉠ : '학생 1'과 '학생 2'가 모두 동의하는 내용으로 글을 시작하였군.

② ㉡ : '학생 2'의 입론과 '학생 1'의 반론에서 공통으로 인정한 내용을 반영하였군.

=> ①번과 ②번 모두 '공통 인정선'을 바탕으로 선지가 구성되었습니다. 선지의 적절성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선지가 구성될 수 있음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본질적입니다. 물론 **적절합니다.**

③ ㉢ : '학생 2'의 입론에 사용된 둘째 논거가 현실과 어긋남을 보여 주는 사례를 들고 있군.

=> '학생 2'의 입론에 사용된 둘째 논거는 "가격 결정권이 책방 주인에게 있는 대신 '나'는 거래를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었으므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는 것입니다. ㉣은 소비자가 설령 당을 구매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었으므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은 '학생 2'의 입론에 사용된 둘째 논거와 부합하는 사례이므로 **부적절합니다. (정답)**

④ ㉤ : '학생 1'의 반론에 사용된 둘째 논거를 수용하여 논지를 전개하였군.

=> ㉤은 이윤 추구가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부합하므로 **적절합니다.**

⑤ ㉠ : '학생 1'의 관점에 부합하는 주장을 결론으로 제시하였군.

=> ④번과 동일한 논리에 의해 **적절합니다.**

[7~9]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4\_9\_B)

사회자 : 교내 음악 방송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학교 누리집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내 음악 방송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제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입론**은 찬성 측에서 먼저 시작해 주시고 이후에 양측이 번갈아 가면서 발언해 주십시오.

찬성자 1 : **교실에서 자습하는 학생들의 공부할 권리가 침해**되므로 교내 음악 방송은 폐지해야 합니다.

반대자 1 : 교내 음악 방송은 유지해야 합니다. 교내 음악 방송 폐지는 **휴식 시간에 음악 감상을 하며 쉬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성자 2 : **교내 음악 방송은 빠른 템포의 댄스 음악 위주라 공부에 방해가 되고** 그 음악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반대자 2 : 음악 감상은 청소년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또한 신나는 댄스 음악을 듣는 것은 **긴장감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회자 : 찬성 측은 공부할 권리를, 반대 측은 음악을 들으며 **실 권리를 근거로 각각 음악 방송의 폐지와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먼저 반론**해 주십시오.

반대자 1 : 음악 감상이 **학습 효율을 높여 준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 방송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찬성 측의 주장은 억지 주장입니다.

찬성자 1 : 억지 주장이라고요?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해도 되나요? 네?

사회자 : **잠깐만요, 양측은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은 삼가**주십시오.

찬성자 1 : 네.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조용한 음악**이면 모를까 지금처럼 댄스 음악만 나오는 방송은 학습에 지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대자 2 : 짧은 방송 시간에 여러 장르 음악을 섞어 듣느니, 지금처럼 댄스 음악만 들으며 스트레스를 푸는 게 더 낫습니다. 그게 아니면 **청취 여부를 각 학급별로 선택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교내 음악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곳은 교실뿐이니까 듣기 싫은 사람은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면 되지 않나요?

찬성자 2 : 우리에게 도서관으로 가라고 하고, 반대 측은 지금처럼 교실에서 계속 음악 방송을 듣겠다는 것은 일방적인 강요 아닌가요? 우리도 교실에서 편하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음악 방송 청취 여부를 반별로 선택하게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지만, 도서관으로 이동하는 것은 너무 불편하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회자 : 네. 양측의 반론 잘 들었습니다. 교실이라는 동일한 공간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략)

< 해당 담화 분석 >

=> 사회자의 논제 제시 → 찬성 측 입론 → 반대 측 입론 → 찬성 측 입론 보강 → 반대 측 입론 보강 → 찬성 측 반론  
 ↳ 찬성 측 입론 근거와 반대 측 입론 근거가 대립 관계 형성  
 ↳ 반대 측 반론에 이어 찬성 측의 감정적 대응 발생

※ “대립 관계에서의 공통 인정선”

=> 찬성 측은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조용한 음악’이라면 교내 음악 방송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보임  
 => 반대 측은 ‘청취 여부를 각 학급별로 선택하게’ 한다면 교내 음악 방송을 무조건적으로 진행하지는 않겠다는 여지를 보임  
 ↳ 찬성 측 역시 이는 수긍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임

※ 해당 지문은 사회자의 일반적인 역할을 매우 잘 드러냅니다.

7. 위 토론에 나타난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론자들의 발언을 요약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  
=> ‘찬성 측은 공부할 권리를, ~ 주장했습니다.’에서 발언을 요약하고 쟁점을 정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 ② 토론의 진행 절차에 맞게 발언 순서를 지정하고 있다.  
=> 입론과 반론의 순서를 지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 ③ 토론이 열리게 된 배경과 토론의 논제를 소개하고 있다.  
=> ‘교내 음악 방송을 폐지하자는 ~ 많습니다.’에서 배경을 제시하고, 이후 바로 논제를 소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 ④ 토론자들이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도록 토론에 개입하고 있다.  
=> ‘잠깐만요, ~ 삼가주십시오.’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적절합니다.

---

- ⑤ 토론자의 모호한 발언에 대해 질문을 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다.  
=> 토론자의 모호한 발언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질문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절합니다. (정답)

8. 위 토론 과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입론**에서 ‘찬성자 2’는 교내 음악 방송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을 지적하며 ‘찬성자 1’의 입론을 보강하고 있다.

=> ‘교내 음악 방송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은 지문에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부적절**합니다.

② **입론**에서 ‘반대자 2’는 음악 감상이 청소년의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언급하며 ‘반대자 1’의 입론을 보강하고 있다.

=> (**정답**)

③ **반론**에서 ‘반대자 1’은 음악 감상이 학습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며 입론의 ‘찬성자 2’가 제기한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 ‘반대자 1’은 음악 감상이 학습 효율을 높여 준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했으므로 **부적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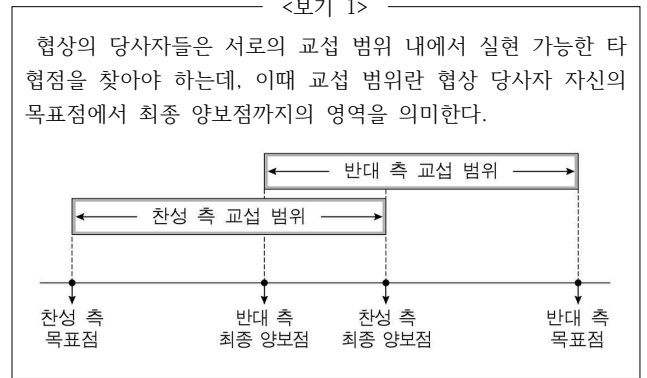
④ **반론**에서 ‘찬성자 1’은 음악 장르 분류의 어려움을 들어 반론의 ‘반대자 1’이 제시한 논거를 반박하고 있다.

=> ‘음악 장르 분류의 어려움’은 지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적절**합니다.

⑤ **반론**에서 ‘찬성자 2’는 도서관 개방 시간의 제약을 들어 반론의 ‘반대자 2’가 제시한 논거를 반박하고 있다.

=> ‘도서관 개방 시간의 제약’을 들어 논거를 반박한 것이 아니라, ‘도서관으로 이동하는 것은 너무 불편’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자 2의 논거를 반박했으므로 **부적절**합니다.

9. 위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협상을 한다고 할 때, <보기 1>의 ‘찬성 측 교섭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지문과의 대응지점**

‘협상’이라는 타이틀을 빌려왔지만 사실 ‘공통 인정선’을 묻기 위해 출제된 문항입니다. 이미 지문에서 확인했듯이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음악’과 ‘청취 여부의 학급별 선택’이 양보가 가능한 구간입니다.

- <보기 2>
- ㄱ.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용한 음악으로 음악 방송을 편성한다.
  - ㄴ. 학급별로 구성원의 의견에 따라 반별 음악 방송 청취 여부를 결정한다.
  - ㄷ. 음악 방송을 듣기 싫은 학생들은 도서관으로 이동하여 공부한다.
  - ㄹ.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내 음악 방송의 시간을 연장한다.

- ① ㄱ, ㄴ (**정답**)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12] 다음은 두 마을 간의 협상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6\_9\_B)

○○군에서는 전국적 규모의 축제를 기획하면서 개최 장소를 A 마을과 B 마을 중에서 선정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두 마을이 공동 개최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A 마을의 대표 A와 B 마을의 대표 B가 후속 협상을 하게 되었다.

A :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 협상에서 다루지 못한 축제 공식 명칭에 대하여**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B : 좋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A : 그러면 저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 공식 명칭은 두 마을의 이름을 병기하되 저희 마을 이름을 먼저 표기했으면 합니다.**

B : 글썄요. **저희도 저희 마을 이름이 앞섰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개최지로 저희가 유력했던 상황에서 사실상 저희의 양보로 공동 개최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명칭과 관련해서는 저희의 의견을 수용해 주십시오.

A : 공동 개최와 관련해 잘못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B 마을도 공동 개최가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합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축제 명칭은 각자의 축제 유치 의도를 고려하되 세부 조건을 조율해서 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B : 무슨 뜻인지요?

A :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B 마을은 축제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B : 그렇습니다.

A : 그런데 이미 **유명한 B 마을과는 달리 저희는 저희 마을을 전국에 알리는 것이** 일차적 목표입니다. 그러니 **축제 명칭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B 마을에 유리하도록 협상의 세부 조건을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B : 글썄요. 축제 명칭에서 앞쪽에 표기되는 것은 그 의미가 큼니다. 저희 마을의 인지도가 이미 높다고 하더라도…….

A : 명칭에서 **저희 마을 이름을 앞세우는 대신 원하는 조건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B :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경제적 이익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첫째, 명칭보다는 홍보 효과가 적지만 저희 마을 특산품을 축제 캐릭터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공동 개최를 하게 되면 행사들을 서로 나누어 진행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전체 행사 중 60%를 가져가겠습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축제 공식 명칭과 관련하여 합의할 수 없습니다.**

A : B 마을 특산품을 캐릭터로 만들면서 행사를 60%까지 가져간다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행사 배분 비율은 공동 개최에 걸맞게 50%를 원칙으로 합니다.**

B : 그 제안은 저희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도 공동 개최에 대한 반대가 많거든요. 차라리 저희 마을이 유치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단독 개최를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A : 지난번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같은 ○○군 마을끼리 온당치 않습니다. 단독 개최를 하더라도 저희 마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행사 배분 비율은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B 마을이 원하는 다른 조건을 추가하시는 게 어떨까요?**

B : 좋습니다. 이렇게 하죠. **행사 배분은 동일하게 50%씩 하고, 행사 선택은 하나씩 교대로 하되, 저희 마을부터 선택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수익성이 높은 행사를 저희 마을에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A : 음. 저희 마을 이름을 먼저 표기하는 것으로 하고 그 정도 조건이면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합시다.

< 협상의 특징 >

- ☞ 협상은 이익과 관련된 갈등을 인식한 둘 이상의 주체들이 이를 해결할 의사를 가지고 모여 합의에 이르고자 **대안을 조정하고 구성하는 공동 의사 결정 과정**입니다.
- ☞ 협상은 토론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토론자들이 대립적인 관계를 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서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의 경우, 양측이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목적만을 관철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가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Give & Take’**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협상 지문은 최종적으로 양측이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양보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협상의 일반적 구조 >

[의제 제시] → [우선 목표 제시] → [양보] → [협상 타결]

- ☞ ‘의제’는 ‘논제’와 마찬가지로 늘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의제의 이탈’**과 관련하여 선지가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 협상을 할 때 서로가 설정한 목표는 다양하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중시하는 우선 목표가 서로 일치한다면 협상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측은 각자의 우선 목표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제시문에는 반드시 양측의 우선 목표가 제시됩니다.
- ☞ 협상에 ‘양보’의 과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서로 양보를 하지는 않습니다. 즉 상대측의 제안에 대해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상대방이 자신의 제안을 수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제안을 따랐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반드시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양보’의 과정은 지속적으로 **‘Give & Take’**가 이루어집니다.
  - ※ 이때 양보할 수 있는 한계의 최대지점인 **‘최종 양보점’**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최종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때에는 양측이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양보했는지 한 번쯤 되짚고 문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차피 출제될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 해당 담화 분석 >

=> 의제 제시 → A 마을의 우선 목표 제시(자신의 마을 이름을 먼저 표기) → 충돌 → B 마을의 우선 목표 제시(경제적 이익) → Give & Take → 협상 타결

10. 위 협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는 지난 협상에서 논의하지 못한 사안을 언급함으로써 의제를 제시하였군.

=> A는 '지난번 협상에서 다루지 못한 축제 공식 명칭'에 대한 논의를 언급했으므로 **적절**합니다.

② A는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협상 전에 알아본 B 마을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고 있군.

=> A는 B 마을의 우선 목표(경제 활성화)를 미리 알아봤으므로 **적절**합니다.

③ B는 A가 제안한 세부 조건이 협상 결렬을 초래할 수 있음을 내비치며 A의 새로운 제안을 이끌어 내었군.

=> B는 A가 제안한 세부 조건(축제 캐릭터를 B 마을의 특산품으로 하는 것은 수용하되 행사 배분 비율은 50%로 할 것)를 들은 이후 '차라리 저희 마을이 유지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단독 개최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이후 A는 B 마을이 먼저 행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안을 했으므로 **적절**합니다.

④ B는 A의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을 고려하여 자신이 제안한 세부 조건을 수정하여 제시하였군.

=> A는 '행사 배분 비율은 양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고, B는 이에 자신의 마을부터 행사를 선택하겠다고 기존의 주장(행사 배분 비율 60%를 가져가겠음)을 수정했으므로 **적절**합니다.

⑤ A와 B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난 협상에서 합의된 사안이 수정되었군.

=> '지난 협상에서 합의된 사안'인 '두 마을의 공동 개최'는 유지되었으므로 **부적절**합니다. (정답)

11. 위 협상에 나타난 A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의제 타결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 A가 '축제 공식 명칭에 대한 논의'를 빨리 끝내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으므로 **부적절**합니다.

② 연쇄적인 질문을 통해 갈등 상황의 원인이 양측 모두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A가 질문을 하는 것은 3번('~ 어떠세요?', '저희가~ 맞죠?',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입니다. 그러나 연쇄적인 질문은 질문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이기에 때문에 큰 간격을 두고 이루어지는 3번의 질문을 연쇄적인 질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적절**합니다.

③ 상대방의 의견이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자신의 제안에 동의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 A는 B 마을의 두 번째 발언(글썸요, ~ 수용해 주십시오.) 이후 '공동 개최와 관련해 잘못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발언

하며 상대방의 의견이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러니 축제 명칭은 ~ 좋다고 봅니다.'라고 발언함으로써 자신의 제안에 동의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정답)

④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감정에 호소하여 상대방의 무조건적인 양보를 요청하고 있다.

=> '감정에 호소'한 적은 없으므로 **부적절**합니다.

⑤ 가정적 진술을 통해 상대방이 내세운 근거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자신의 의견이 정당함을 피력하고 있다.

=> '가정적 진술'은 보통 '~ 한다면'의 양식을 빌려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제시문에서는 이와 같은 가정적 진술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적절**합니다.

12. 위 협상에서 A와 B가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A와 B 모두 상대방의 양보로 축제의 공동 개최가 가능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 B의 경우 자신의 마을의 양보로 공동 개최가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A 역시 B 마을이 양보해서 축제의 공동 개최가 가능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므로 **부적절**합니다.

② A는 축제 명칭을, B는 행사 배분 비율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양보했기 때문이다.

=> A는 협상을 통해 자신의 마을의 이름이 먼저 표기되는 것을 이루어냈으므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적절**합니다.

③ A는 행사 선택의 순서에서, B는 축제 캐릭터와 관련해서 최초의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양보했기 때문이다.

=> B는 협상을 통해 자신의 마을의 특산품을 축제 캐릭터로 만드는 것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최초의 입장을 고수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적절**합니다.

④ A 마을의 인지도 향상과 B 마을의 경제적 이득 증대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 애초에 A 마을의 협상 우선 목표는 '마을의 인지도 향상'이었고, B 마을은 '경제적 이득'이 협상 우선 목표였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⑤ A가 바라는 효과적인 축제 홍보와 B가 바라는 마을의 화합 증진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 B 마을이 마을의 화합 증진을 목표로 한 적도 없고, A 마을이 효과적인 축제 홍보를 목표로 한 적도 없으므로 **부적절**합니다.

[13~15] 다음은 학습 활동 과제에 따라 진행한 ‘모의 협상’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6\_6\_B)

**학습 활동** 다음 상황을 보고, 양측 대표의 역할을 맡아 협상을 해 보자.

한 식품 가공 회사는 고속도로에 인접한 농업 기반 도시인 ○○시로 공장을 확장하여 이전하기 위해 시청과 협상하려 한다. 회사 측에서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전 허가를 받으려 하고, 시청 측에서는 공장 이전을 허가하되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면서 주민 소득을 늘리려 한다.

**[모의 협상]**

회사 측 : 저희 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측면에 관심이 많으실 테니 그 문제부터 다루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공장을 확장 이전하면서 전체 직원 수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를 지역 주민만으로 충원하겠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분명히 지역에 이득이 될 것입니다. ㉠ 그러니 이전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측 : 저희가 걱정하는 건 공장 하수로 인해 하천 오염 및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효과를 논하기 전에 이에 대한 대책부터 듣고 싶습니다.

회사 측 : 예, 공장을 이전하면서 최신 하수 처리 시설을 완비할 예정인데, 하수 배출 관련 규정에 제시된 것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정화 및 탈취 처리를 하겠습니다.

시청 측 : 좋습니다. 하수 처리가 철저하게 된다면 공장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제한하셨던 내용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역 주민 채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일자리가 늘긴 하겠지만 주민 다수가 공장 이전의 효과를 체감하기엔 제시하신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말씀하신 채용 인원을 세 배 늘려 주십시오.

회사 측 : 그러려면 공장 이전과 동시에 기존 직원 수를 줄이거나 전체 인원을 더 늘려야 하는데, 곤란합니다. 대신 채용 인원을 점차 늘려 5년 후에는 현재 채용 예정 인원의 두 배가 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측 :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대신에 가공 식품 원료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구입해 주십시오. 그러면 공장 이전으로 인한 소득 증대 효과를 주민 다수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군요.

회사 측 : 좋습니다. 어차피 다른 지역과 가격 차이가 없으니 그렇게 하지요. 그 대신 지역 주민들도 안정된 판로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니, 저희가 농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청 측 : 저희 농산물을 구입하신다면 가격 할인 없이도 회사 측에 운송비 절감의 이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농산물 가격 문제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생산 농가 주민들과 협상할 수 있는 자리를 따로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 측 :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해당 담화 분석 >**

- 회사 측 협상 목표 : 비용 부담 최소화 & 이전 허가
- 시청 측 협상 목표 : 공장 이전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 주민 소득 증대

- 회사 측이 시청 측의 협상 목표를 고려하여 먼저 조건 제시  
=> 공장 확장 이전에 필요한 전체 직원 수의 10%를 지역 주민만으로 채용

- 시청 측의 우선 목표 제시  
=> 공장 하수로 인해 발생할 피해 최소화  
=> 대책 요구

- 시청 측의 요구 수용

- 시청 측의 이차 목표 제시  
=> 주민 소득 증대 : 채용 인원을 세 배 늘려달라고 주장  
=> 그대로 수용될 리가 없음

- 시청 측의 제안 거부 & 새로운 제안  
=> 채용 인원을 점차 늘려 5년 후에 채용 예정 인원의 두 배가 되게 조치 (최종 양보점의 제시)

- 공장 측의 제안 수용 & 새로운 제안  
=> 시청 지역의 농산물 구입 요구

- 시청 측의 제안 수용 & 새로운 제안  
=> 농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요구

- 공장 측의 제안 거부 & 새로운 제안  
=> 생산 농가 주민들과 협상할 수 있는 자리 마련

13. 협상에 대한 설명 중, 위 ‘모의 협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① 협상 참여자 양측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상 타결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이다.

=> 시청과 공장 측은 모두 자신의 협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쟁하지만 그와 동시에 협상 타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있으므로 협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합니다**.

② 협상에서는 참여자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타협안을 찾아간다.

=> 시청과 공장 측 모두 최초의 제안을 상대의 반응에 따라 수정해 가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③ 협상 방법 중에는 상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여 절충하는 방법이 있다.

=> 시청 측이 공장 이전의 허가를 수용하기 위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을 요구하는 모습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④ 협상에서 참여자 간의 입장 차이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 제삼자에게 중재를 요구할 수 있다.

=> 제삼자는 지문에 등장하지 않으므로 **부적절합니다. (정답)**

⑤ 협상에서 어떤 쟁점을 우선 다룰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협상 참여자들 간에 서로 다를 수 있다.

=> 시청 측은 주민 소득의 증대보다 공장 이전으로 인한 주민 피해 감소를 협상의 우선 목표로 설정했으므로 **적절합니다**.

14. ‘회사 측’의 발화 의도를 고려할 때,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자신의 기본 입장을 드러내는 발화이고, ㉡은 상대방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발화이다.

=> ㉠과 ㉡ 모두 자신의 기본 입장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부적절합니다**.

② ㉠은 상대방의 제안에 동의함을 나타내는 발화이고, ㉡은 상대방에게 수용 여부를 묻는 발화이다.

=> ㉠은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는 것이고, ㉡은 자신이 양보할 수 있는 최종 양보점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부적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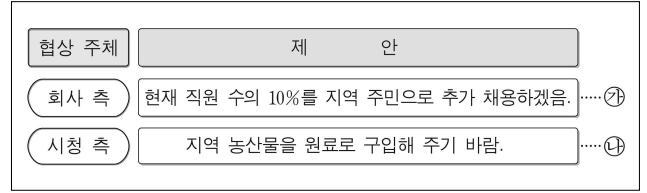
③ ㉠은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는 방법이고, ㉡은 자신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한계를 제시하는 발화이다.

=> **(정답)**

④ ㉠은 상대방과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둔 발화이고, ㉡은 상대방과의 정보 공유에 초점을 둔 발화이다.

⑤ ㉠은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려는 발화이고, ㉡은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탐색하려는 발화이다.

15. ‘모의 협상’에서 제시된 제안 가운데 다음 ㉠,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제안하는 측에 손실이 발생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제안이군.

② 제안하는 측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제안이군.

=> ㉠의 경우 공장을 확장 이전하면서 어차피 필요한 인원을 지역 주민 중에서 추가 채용하는 것이므로 제안하는 측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시청 측의 입장에서는 주민 소득을 늘리는데 이익이 되므로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제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 경우 시청 측 역시 회사 측에서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구입해주면 이익이 되므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도 운송비 절감의 이익이 생기므로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제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합니다. (정답)**

③ 제안하는 측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손실을 감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제안이군.

④ 제안하는 측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양보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손실이 될 수 있는 제안이군.

⑤ 제안하는 측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는 제안이군.

[16~18] 다음은 토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5\_9\_B)

사회자 : 지금까지 지역과 학교의 상생 협력을 위해 학교에 문화 체육 시설이나 편의 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들어 보았습니다. ㉠ 의 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 교수 : 시설 조성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관련 법규를 보면 학교에 시설 조성이 가능하다는 정도의 조항만 있을 뿐, 학교에 설치할 시설의 기준이나 설치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시설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A]

사회자 : ㉡ 이번에는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 교수 : 윤 교수의 말씀처럼 규정도 필요하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사업 참여자들의 입장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 참여자들이 서로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런 노력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겠지만 결국엔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B]

사회자 : ㉢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최 교수 : 네, ○○ 지역에서는 주민과 학교가 필요로 하는 주차장과 체육관 시설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해 사업 참여자들의 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들을 예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의 요구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고 학교 시설 조성 사업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C]

사회자 : ㉤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 제도적 보완과 당사자들의 요구를 고려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청중의 질의를 받아 보겠습니다.

청중 1 : 윤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면 사업 참여자들 간에 이견이 발생할 때 이를 근거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규정에 얽매인 나머지, 사업 참여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

윤 교수 : 학교 시설 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거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원칙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협력 주체들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

사회자 : 한 분만 더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청중 2 : 저는 △△ 구청 직원인데요, 저희는 지역 내 학교에 공용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청에서는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 학교에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주차장 조성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학생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주차장 조성을 꺼리고 있습니다. 학교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 : 이에 대해서는 최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최 교수 : \_\_\_\_\_ [가]

- 토의의 특징

- ☞ 토의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토의는 토론이나 협상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협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관계가 대립적이지 않습니다. 토의는 공동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여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함으로써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토론의 일반적 구조

[문제 제시] → [발언 순서 지정] → [문제 분석] → [대안 탐색] → [대안 도출] → [대안 평가]

- ☞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반드시 문제의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 ☞ 이때 다양한 의견에 제시되는데, 당사자들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시된 의견에 대해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제시된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 토론 수행자의 일반적 말하기 방식

- ☞ 사회자 : 문제 제시, 토의 배경 제시, 토론자들의 발언 요약 & 쟁점 정리, 발언 순서 지정 등
- ☞ 토의 참여자 : 문제의 원인 분석 & 해결책의 제시

16. ㉠~㉣의 기능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토의 참여자들이 논의해야 할 사안을 안내한다.  
=>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으므로 적절합니다.

---

- ② ㉡ : 토의 진행을 위해 다음에 발화할 토의 참여자를 지정한다.  
=> 물론 적절합니다.

---

- ③ ㉢ : 토의 참여자가 발화한 내용의 장단점을 요약한다.  
=> 최 교수의 의견을 정리 요약한 것뿐이므로 부적절합니다. (정답)

---

- ④ ㉣ : 토의 참여자의 발화 내용에 대해 추가적 정보를 요청한다.  
=> 관련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추가적 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 ⑤ ㉤ : 두 토의 참여자가 발화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다.  
=> 물론 적절합니다.

17. 토의 참여자의 발화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 '사회자'의 요청에 따라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 : '윤 교수'의 의견을 듣고 '윤 교수'와는 다른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최 교수'는 '사업 참여자들의 입장 차이'를 문제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로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 ~ 협력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으므로 적절합니다.

---

- ③ [C] : '사회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언급한 해결 방안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 ④ [D] : '윤 교수'의 의견을 듣고 '윤 교수'가 제시한 해결 방안의 효용성을 인정하면서도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있다.  
=> '윤 교수'의 의견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적절합니다.

---

- ⑤ [E] : '청중 1'의 의견을 듣고 '청중 1'의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한 후,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자신의 주장을 유보하고 있다.  
=> '윤 교수'는 '말씀하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이라는 표현을 활용함으로써 '규정에 얽매인 나머지, 사업 참여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청중 1'의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 교수'는 '합리적인 규정을 만들어야'한다고 답했으므로 자신의 주장을 유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적절합니다. (정답)

18. '최 교수'가 토의 과정에서 드러낸 자신의 관점을 유지하며 말한다고 할 때, [가]에 들어갈 발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교가 원하는 것은 결국 재정적 지원이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우선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②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위해 학교 측의 요구보다는 주차난의 해소라는 주민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③ 구청은 학생의 안전에 대한 학교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학교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최 교수'는 토의에 제시된 문제 상황의 해결책으로 '사업 참여자들이 서로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으므로 적절합니다. (정답)

---

- ④ 주차장 조성 절차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이 학교가 시설 조성을 반대하는 근거가 되므로 절차에 대한 규정부터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⑤ 주차장 설치를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지역과 학교의 입장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의 원인을 다른 시각으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19~21] 다음의 (가)는 발표 준비를 위한 학생들 간의 대화이고, (나)는 수업 중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6\_9\_A)

(가)  
 학생 1 : 이번에 자유 주제로 학급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과제 있잖아. 우리 모둠은 아직 어떤 내용으로 발표 할지 정하지 못해서 고민이야. 좋은 생각 없니?  
 학생 2 : 최근 세계 로봇 대회에서 우승한 우리나라 로봇 '휴보'가 여러 방송 매체에서 보도되었잖아. 로봇에 대해 발표해 보는 게 좋겠어.  
 학생 1 : 그거 좋다. 그런데 로봇에 대한 내용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다룰 내용을 좀 좁히면 좋겠는데, 어떤 내용을 다뤄야 친구들이 흥미롭게 들을까?  
 학생 2 : 이걸 어떤? 로봇이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로봇의 발전과 관련하여 발표해 보는 거야.  
 학생 1 : 괜찮다. 이번 발표는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아.

(나)  
 [A] 여러분, 앞의 화면을 잠시 봐 주세요. (로봇 영상을 보여 주며) 여기 등장하는 로봇은 올해 세계 로봇 대회에서 우승한 우리나라 로봇 '휴보'입니다. 두 발로 걷고 총계를 오르내리는 것이 사람과 비슷하네 참 신기하죠? 이 시간에는 이런 로봇의 발전과 인간의 삶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B]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로봇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 보도나 영화에서 봤던 여러 형태의 로봇이 생각날 것입니다.  
 [C] 자, 여기 사진을 봐 주십시오. (사진을 보여 주며) 이 당시의 로봇은 사람을 닮은 데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후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의 팔 모양을 한 로봇이만 들어지고 최근에는 '휴보'처럼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형태를 갖추어 두 발로 걷는 로봇이나 인간의 감정을 읽는 로봇까지 등장하였습니다.  
 [D] 그렇다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로봇들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을까요? 초창기 로봇들은 운반이나 부품 조립과 같은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로봇이 개발되어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을 구조하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대신해 줌으로써 인간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화가 가능한 로봇이 등장하여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친구의 역할까지 해 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E] 향후에 기술 발전에 따른 로봇의 상용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는 보다 많은 시간적 여유와 삶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 상용화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로봇 시장 규모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014년에 국내 로봇 산업 실태를 조사한 △△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로봇 시장 규모는 2013년 2조 2,210억 원에서 2018년 7조 원으로 성장해 약 3.2배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등 로봇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로봇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 발생하는 문제일 뿐, **인간이 로봇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질 **로봇의 발전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표의 특징

- ☞ 발표는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진술하는 형태를 띠니다. 이때 발표는 화자의 일방적인 전달 행위가 아니라, 청중이 해당 정보를 이해하고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 ☞ 발표는 크게 정보 전달과 설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보 전달을 위한 발표는 조사 연구 결과 등의 사실적인 정보를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설득을 위한 발표는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청중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 발표의 일반적 구조

[발표 준비] → [도입부] → [전개부] → [정리부]

- ☞ 발표는 여러 사람 앞에서 행해지는 공적인 말하기이므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와는 달리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이때 발표 주제와 목적을 선정하고, 예상 청중을 분석하며, 발표 자료의 수집과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발표 전략**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도입부에서는 발표 내용의 화제나 주제, 목적 등을 설명합니다.
- ☞ 전개부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거나, 시청각 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청중이 발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정리부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덧붙이고 싶은 주장을 언급하며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발표자의 일반적 말하기 방식

- ☞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사례를 제시하거나, 청중의 경험을 환기시키는 방식을 활용함.
- ☞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위해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유도함.

19. (가)에서 ‘학생 2’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의 의도를 질문을 통해 확인하며 말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 ‘학생 1’이 어떤 내용으로 발표할지 정하지 못해서 고민할 때 ‘학생 2’가 발표 주제를 제시해 주었으므로 적절합니다. (정답)

- ③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말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며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의 발언 가운데 이해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20. [A]~[E]에 활용된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로봇과 관련된 최근 사례를 제시하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 ② [B] :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위해 로봇이란 말이 무엇을 떠오르게 하는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다.
- ③ [C] : 청중들이 발표 대상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매체를 활용하여 로봇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 ④ [D] : 로봇의 형태가 변화해 온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예를 들고 있다.

=> ‘로봇의 형태’가 변화해 온 이유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로봇이 우리 삶에 미치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부적절합니다. (정답)

- ⑤ [E] : 국내 로봇 시장 규모의 증대에 관한 보고서를 근거로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21. 다음은 (나)를 들으며 학생이 메모한 내용이다. ㉠~㉣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로봇의 발전 과정

- 로봇 하면 떠오르는 것은?-----㉠
- : 영화 ○○에서 로봇이 권투하던 장면이 떠오르는군.
- 사람을 전혀 닮지 않은 로봇에서 점차 사람을 닮은 로봇으로 변화함.
- 사람의 감정을 읽는 로봇의 등장-----㉡
- : 과학 시간에 배운 ‘인공 지능 기술’이 적용된 사례이겠군.

• 로봇으로 인한 인간 삶의 변화

-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로봇부터 친구가 될 수 있는 로봇까지 여러 로봇이 등장함.
- :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데 로봇이 인간 소외 현상의 대안이 될 수 있겠군.-----㉢

• 로봇 발전에 대한 전망

- 로봇 시장 규모의 증대
- 로봇의 상용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함.
-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부정적 견해를 비판함.

- ① 발표 내용을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과 관련지으면서 들었다.

=> 자신이 영화에서 본 장면을 떠올리는 것이나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연관 짓는 것은 자신의 경험과 발표 내용을 관련지은 것으로 볼 수 있고,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을 발표와 연관 짓는 것은 자신의 지식과 발표 내용을 관련지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합니다. (정답)

- ②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가 신뢰할 만한지를 따지면서 들었다.
- ③ 발표자가 언급했던 내용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들었다.
- ④ 발표 내용이 사실인지 발표자의 의견인지를 구분하면서 들었다.
- ⑤ 발표자의 의견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면서 들었다.



[22~24] (가)는 발표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고, (나)는 '학생 2'가 수업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5\_9\_A)

(가)

학생 1 : 내일은 네가 발표할 차례지? 준비는 다 했어?  
 학생 2 : 음……. 솔방울과 습도의 관계에 대해 발표하려고 해. 자료 준비는 충분한 것 같은데 ㉠ 발표를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야.  
 학생 1 : 흥미로운 주제네. 자료 준비도 잘한 것 같은데 뭘 그렇게 걱정해?  
 학생 2 : 사실 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 본 경험이 별로 없잖아. 그래서 친구들이 모두 나에게 집중하면 오히려 발표를 잘 못할 것 같아.  
 학생 1 : 그러면 몇몇 친구들 앞에서 연습을 한번 해 보는 건 어때?  
 학생 2 : 그래. 그러면 발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네 말대로 해 볼게. 고마워.

(나)

여러분은 솔방울을 한번쯤 본 적이 있을 테니 솔방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발표하려는 내용은 솔방울의 모양과 습도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솔방울을 잘 살펴보면 날씨에 따라 오므라들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 이유를 아시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그럼 먼저 솔방울의 구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 주며)** 보이는 것처럼 솔방울 겉면은 작은 조각들이 물고기 비늘처럼 서로 조금씩 겹쳐져 있습니다. 이 조각을 '실편'이라고 하는데, 실편 한 개는 대개 소나무 씨앗 한 개씩을 감싸고 있습니다. 솔방울 하나는 보통 70~100개 정도의 실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실편을 이루는 조직 중 바깥쪽 조직은 안쪽 조직보다 습기에 더 빨리 반응합니다. 이 부분은 영상을 보면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영상을 보여 주며)** 벌어진 솔방울에 물을 부으면 솔방울이 서서히 오므라드는데요, 이것은 실편의 바깥쪽 조직이 안쪽 조직보다 물기를 더 빨리 흡수해서 그만큼 빨리 팽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편들이 모두 안쪽으로 굽어져서 솔방울이 오므라들게 되는 것이지요. **이 솔방울을 건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맞습니다.** 실편 바깥쪽 조직이 안쪽보다 더 먼저 수축해서 솔방울이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런 솔방울의 특성을 알고, 솔방울이 벌어진 정도로 날씨를 예측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솔방울의 특성을 응용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땀을 잘 배출하도록 고안된 운동복도 있습니다. 이 운동복은 솔방울의 특성을 응용하여 땀을 외부로 배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운동할 때 이런 운동복을 입으면 참 시원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솔방울이 습도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이유와 이 원리를 생활에 이용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22. (가)의 상황에서 ㉠의 해소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중 앞에서 발표해 본 경험이 부족하여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미리 친구들 앞에서 연습을 하며 자신감을 얻는다.
- => '학생 2'가 부담감을 느끼는 이유는 발표 경험이 없어서이고, '학생 1'은 이에 대해 연습을 해볼 것을 제안했으며 '학생 2'는 이를 수용했으므로 적절합니다. (정답)
- ② 발표할 주제가 청중의 흥미를 끌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으므로 청중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으로 주제를 교체한다.
- ③ 발표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발표 내용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한다.
- ④ 발표에서 실패했던 예전의 기억 때문에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두려움을 이겨 낸다.
- ⑤ 청중의 높은 지적 수준에 대해 압박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다양한 질문을 작성해 봄으로써 성공적인 발표에 대한 자기 암시를 한다.

23. 다음은 '학생 2'의 발표 계획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보 기>

- ㉠.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친구들의 경험을 환기하는 방식으로 시작해야겠어.
- ㉡. 설명하려는 현상을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매체 자료를 활용해야겠어.
- ㉢. 소개하려는 사례가 경제적으로 유용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통계 자료를 제시해야겠어.
- ㉣. 친구들이 발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발표를 진행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반응을 확인해야겠어.
- ㉤. 친구들이 발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해야겠어.

- ① ㉠
- ② ㉡
- ③ ㉢ (정답)
- ④ ㉣
- ⑤ ㉤

24. (나)의 발표를 듣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솔방울 하나에는 소나무 씨앗 한 개가 들어있겠군.
- ② 솔방울이 습기를 잃으면 실편은 안쪽으로 오므라들겠군.
- ③ 옛날 사람들은 솔방울이 활짝 벌어지면 비가 올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겠군.
- => 솔방울은 건조시키면 솔방울이 벌어지므로 솔방울이 활짝 벌어졌다는 것은 건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가 올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정답)
- ④ 솔방울의 실편 안쪽 조직은 바깥쪽 조직에 비해 습기에 더 빨리 반응하겠군.
- ⑤ 솔방울의 특성을 응용하여 만든 운동복은 외부의 습기를 차단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되었겠군.

[25~27] 다음은 연설 의뢰서와 이에 따라 행한 연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6\_수능\_B)

**[연설 의뢰서]**

저는 20xx년 세계 □□ 사이클 대회 A시 유치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난 대회 우승자인 ○○○ 선수께 **개최지 결선 투표를 위한 지지 연설**을 부탁드립니다. **투표단은 대부분 사이클에 애정을 지닌 선수 출신들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개최지가 대회 취지에 잘 부합하는지를 중시**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클 선수 ○○○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니 무척 설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 □□ 사이클 대회의 취지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클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개최된 마흔두 번의 대회 중 사이클 강국인 유럽과 북미가 아닌 곳에서 개최된 적은 단 두 번뿐이었습니다. **우리 A시는 사이클 비인기 지역인 아시아의 도시이고 경쟁 도시는 유럽의 도시입니다. 흔히 사이클 비인기 지역의 도시가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대회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대회를 통해 사이클에 대한 A시의 시민들, 나아가 아시아 각국 시민들의 관심을 증폭할 수 있으므로 사이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최지로서 좋은 여건**을 갖췄습니다. 사이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사이클 인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쟁 도시는 시민의 지지가 낮지만 우리는 90퍼센트가 넘는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 냈고 정부도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사이클 전용 경기장에 비해 도로 경기장이 노후됐다는 우려도 있지만, **선수로 출전해 본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A시의 도로 경기장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어 정비만 하면 최적의 경기장이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는 각종 국제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전 세계인의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번 대회도 충분히 잘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이클 회원국과의 친선을 도모하고 사이클 활성화에 앞장서면서 세계 사이클 협회와의 약속을 지켜 왔습니다. 이전 대회의 유치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세계 우호 증진에 힘쓰겠다는 당시의 공약대로 사이클 전용 경기장이 없는 해외 도시들의 청소년을 초청하여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개최지로 확정되면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회 준비에 매진하겠습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사이클을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사이클 없는 제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 꿈은 A시에서 열리는 대회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참가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A시 모든 시민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이 꿈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설의 특징**

☞ 연설은 기본적으로 발화자가 다수의 청중을 상대한다는 점에서 발표와 같은 속성을 갖습니다. 발표와의 차이는 연설이 조금 더 공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지며, 객관적인 정보 전달보다는 설득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입니다.

**- 연설의 일반적 구조**

[연설 준비] → [도입부] → [전개부] → [정리부]

☞ 연설은 발표와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 앞에서 행해지는 공적인 말하기이므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와는 달리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이때 연설 주제와 목적을 선정하고, 예상 청중을 분석하며, 연설 자료의 수집과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연설 전략**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도입부에서는 연설 내용의 화제나 주제, 목적 등을 설명합니다.
- ☞ 전개부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거나, 시청각 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청중이 발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정리부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덧붙이고 싶은 주장을 언급하며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설자의 일반적 말하기 방식**

- ☞ 연설자의 말하기 방식 역시 기본적으로는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과 동일합니다. 단, 연설은 설득을 위해 행해지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청중과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예상 청중을 고려하여 연설자 역시 같은 사회적·문화적 환경에 속한 사람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또한 연설은 발표에 비해 설득 이후 청중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청중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하는 단체나 기관, 혹은 내세우는 의견의 강점을 부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약점은 숨기거나 약점을 드러내되,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해당 담화 분석 >**

- 사이클 대회의 취지를 언급하며 연설 의뢰서의 요구사항 반영
- A시의 약점을 언급했으나 이에 대한 보완책 동시 제시
  - => 사이클 비인기 지역이지만 아시아 각국 시민들의 관심을 증폭 시킴으로써 사이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 도로 경기장이 노후됐다는 우려가 있으나 잘 정비만 하면 최적의 경기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
- A시의 강점을 부각
  - => 90%가 넘는 시민의 합의, 정부의 재정 지원 약속
  - => 각종 국제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해 왔음.
- 청중과의 공감대 형성
  - => 자신 또한 사이클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

25. 연설 의뢰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운 계획 중 연설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 ① 대회 유치를 위해 청중을 설득해야 하므로 A시가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겠어.
- ② 청중이 대회의 취지를 중시하므로 A시가 대회 취지를 잘 실현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겠어.
- ③ 청중이 사이클에 애정이 있을 것이므로 청중과의 공통점을 내세워 공감대를 형성해야겠어.
- ④ 청중에게 신뢰감을 주어 지지를 얻어야 하므로 A시 도로 경기장에 대해 설명할 때 선수로서의 경험을 내세워야겠어.
- ⑤ 청중이 전문 지식이 있으므로 A시 사이클 전용 경기장의 내부 구조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해야겠어.

=> A시는 사이클 전용 경기장이 없으며, 도로 경기장을 사용해야 하므로 부적절합니다. (정답)

26. 연설자가 연설에 사용한 전략과 구체적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3점]

전략 예상 평가 항목	감정 부각	약점에 대한 인식 전환
대회 취지 부합성	㉠	㉡
대회 개최 여건	㉢	㉣
대회 운영 능력	㉤	

- ① ㉠ : 대회 개최가 A시 시민들 간의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대회 취지에 부합함을 보여 준다.
- ② ㉡ : 사이클 비인기 지역에서의 대회 개최가 사이클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

=> A시의 약점은 '사이클 비인기 지역'이라는 점인데, 연설자는 사이클 비인기 지역에서의 사이클 대회 개최로 사이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므로 적절합니다. (정답)

- ③ ㉢ : 경기 시설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부정적 시각을 차단한다.
- ④ ㉣ : 개최지 선정의 불공평성을 근거로 내세워 대회 유치의 타당성을 주장한다.
- ⑤ ㉤ : 자료를 인용하여 사이클 강국이 아닌 곳에서도 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사실을 강조한다.

27. A시의 경쟁 도시를 지지하는 청중이 위 연설을 반박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시의 경쟁 도시 시민의 지지가 낮다고 한 것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 연설자는 '경쟁 도시는 시민의 지지가 낮지만'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합니다. (정답)

- ② A시가 국제 대회 개최 경험이 많다고 한 것은 성공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 ③ 정부의 지원 여부를 밝히지 않고 지지를 호소한 것은 재원 마련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므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 ④ 해외 청소년 대상 사이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언급한 것은 사이클 활성화의 사례가 되므로 A시의 지지자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⑤ A시에서 사이클이 비인기 종목이라고 언급한 것은 대회 개최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을 보여 주므로 A시가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8~30] 다음은 모의 면접 수업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16\_9\_A)

선생님 : 이 시간에는 예고한 대로 대학 입학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볼 거예요. **피면접자가 되는 학생은 지원하려는 학과와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간단히 써서 면접자에게 전해 주라고 했었죠? 나름대로 질문을 예상해 보고 효과적으로 답변할 준비를 했나요?**

학생들 : 네.

선생님 : **면접자가 되는 학생은 면접 목적을 고려해서 질문을 준비하는 것이 과제였어요. 피면접자의 학과 선택 동기와 진로 준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질문으로 준비했나요?**

학생들 : 네.

선생님 : 좋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질문하고 답변해서 면접 대화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제 모의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면접을 진행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과제를 잘 해결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모의 면접]

면접자 : 음, 학생의 글을 보니 그림에 재능이 있고, 진로도 그와 관련된 분야를 생각하고 있는데 문예창작과에 지원했군요. **이 말은 학생이 우리 학과에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니 편안한 마음으로 학생이 쓴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림과 문예창작과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피면접자 : 희망 학과를 말씀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던데요,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문예창작과에 지원한 이유를 물으신 거죠? (잠시 숨을 고르고)**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은 소설이나 동화의 삽화입니다. 좋은 삽화를 보면 이야기의 일부라는 느낌을 받는데, 바로 그런 삽화를 그리는 게 제 꿈입니다. **(약간 높은 목소리로 포박포박)** 이야기에 딱 맞는 삽화를 통해 감동을 주고, 직접 소설을 쓰기도 하는 삽화가가 되기 위해 지원했습니다.

면접자 : 진로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세웠군요. 학생의 답변을 들으니 소설에 관심이 있다는 말인데, 그럼 그림 공부하는 잠시 미루는 건가요?

피면접자 : 아뇨. **(힘을 주어)** 그동안 꾸준히 해 온 것처럼 힘들더라도 그림 공부는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면접자 : 꿈을 향한 의지가 대단한데, 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림 그리는 것 외에 소설 창작이나 다른 글쓰기 활동을 한 적이 있나요?**

피면접자 : 음,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소설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했고요, 읽고 나서는 감상문을 기록했는데, 삽화에 대한 느낌도 함께 적었습니다. 또 학급 문집 만들거나 학교 신문반 활동도 했습니다.

면접자 : 그렇군요. 다음 질문은 질문지에 있습니다. (질문지를 건네주며)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 쉽게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질문]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는 자료 (가)와 (나)의 차이점을 설명하십시오.

(가)

그는 친구들의 칭찬에 '뭐, 그 정도쯤이야.' 싶었지만 생각할수록 스스로가 대견했다. 자꾸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끼며, 으쓱한 기분으로 손가락으로 턱을 문질렀다.

(나)



면접자 : 표현 내용이나 효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표현 수단의 차이부터 설명해 볼까요?

피면접자 : ( ) [A] ( )

- 면접의 특징

- ☞ 면접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질문과 응답의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대상을 평가하기 위한 공적인 대화입니다. 면접은 대상자의 인품이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면접자가 피면접자에게 던지는 모든 질문에는 특정한 목적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 면접의 일반적 구조

[면접 준비] → [본 면접] → [평가]

- ☞ 면접 준비 단계에서 면접자는 면접 목적에 맞는 질문을 준비하고, 피면접자는 예상 질문에 따라 효과적인 답변을 준비합니다.
- ☞ 본 면접 단계에서 면접자는 질문을 하고, 피면접자는 답변을 합니다.
- ☞ 평가 단계에서 면접자는 면접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면접자를 평가합니다. 피면접자는 자신의 면접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합니다.

- 면접자와 피면접자의 일반적 말하기 방식

- ☞ 면접자와 피면접자는 기본적으로 동등한 관계에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면접자는 피면접자를 평가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 ☞ 면접자는 기본적으로 피면접자에게 '질문'을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때 피면접자는 면접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피면접자가 부담이 덜 느낄 수 있는 표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면접자는 면접 준비 단계에서 설정한 면접 목표와 일치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 ☞ 피면접자는 면접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피면접자는 면접자의 질문이 요구하는 사항과 일치하는 답변을 해야 하며, 종종 효과적인 면접을 위해 면접자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비언어적 표현 vs 반(半)언어적 표현

- 1) 비언어적 표현 : 언어가 아닌 몸짓, 손짓, 표정, 시선, 자세 등으로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음성적 속성'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2) 반언어적 표현 : 억양, 어조, 강약, 높낮이 등을 의미하는데 이는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강화하는 데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음성적 속성'이 반영됩니다.

28. '모의 면접'에서 '면접자'의 질문과 '피면접자'의 답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면접자'는 '피면접자'의 답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질문하였다.

=> '면접자'는 '피면접자'의 답변에 대해 '진로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세웠군요.', '꿈을 향한 의지가 대단한데,' 등과 같이 반응하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합니다.

② '면접자'는 '피면접자'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추가로 질문하였다.

=> '면접자가'가 '학생의 답변을 들으니 소설에 관심이 있다는 말인데, 그럼 그림 공부는 잠시 미루는 건가요?'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피면접자'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추가로 질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합니다.

③ '면접자'는 '피면접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표현을 사용하여 질문하였다.

=> '이 말은 학생이 우리 학과에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니 편안한 마음으로 학생이 쓴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해 보세요.'에서 '피면접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면접자'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④ '피면접자'는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다시 확인한 뒤 답변하였다.

=> '피면접자'는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적이 없으므로 부적절합니다. (정답)

⑤ '피면접자'는 말하려는 내용을 강조하는 반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답변하였다.

=> '반언어적 표현'은 '억양, 어조, 강약, 높낮이' 등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비언어적 표현과는 달리 '음성적 속성'이 개입됩니다. '약간 높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힘을 주어' 등에서 강약과 높낮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비언어적 표현은 보통 '동작'을 통해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Ex. 손짓).

29.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모의 면접'을 평가할 때,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미리 제공된 피면접자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한 질문이군.

② ㉡은 질문 의도를 고려할 때 제시된 과제에 부합하는 질문이군.

=> ㉡은 '피면접자'의 답변으로 보아 '피면접자의 학과 선택 동기'를 확인하려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③ ㉠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지원 동기가 학과의 성격에 부합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겠군.

④ ㉡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진로에 대한 피면접자의 준비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겠군.

⑤ ㉡은 피면접자가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질문이군.

=> ㉡은 진로 준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므로 부적절합니다.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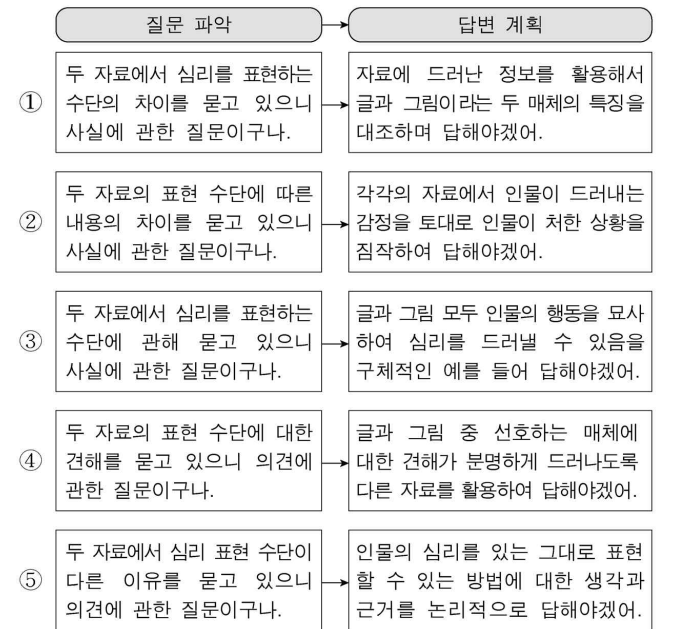
30. <보기>와 '모의 면접'의 흐름을 고려할 때, [A]의 답변을 위한 피면접자의 사고 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면접에서 피면접자는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질문에서 요구하는 답변이 사실에 관한 것인지, 의견에 관한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답해야 하고, 의견에 관한 것일 경우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며 답해야 한다.

**지문과의 대응지점**

면접자는 '표현 수단의 차이'를 물어보았고, 이는 의견이 아닌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피면접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답해야 합니다.



① => [질문지]에서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는 자료 (가) [ : 글 ]와 (나) [ : 그림 ]의 차이점'을 설명하라고 했고, 면접자 역시 '표현 수단의 차이'를 질문했기 때문에 이는 '사실'에 관한 질문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에 대해 피면접자가 '글과 그림이라는 두 매체의 특징을 대조'하며 답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주어진 조건과 정확히 부합합니다. 따라서 적절합니다. (정답)

[31~32] 다음은 친구 간의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16\_6\_A)

학생 1 : 공연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둘이 기타 화음을 좀 더 맞춰 봐야 할 것 같아.

학생 2 : ㉠ 아무래도 그렇겠지? 그럼 우리 토요일에 연습할까? 주중에는 방과 후에 내가 학생회 회의가 계속 있거든.

학생 1 : ㉡ (고개를 저으며) 안 될 것 같아. 나는 토요일에 공연 홍보지를 만들기로 약속이 잡혀 있어. 기타 연습은 주중에 했으면 했는데, 서로 시간이 안 맞네.

학생 2 : 아, 연습을 더 하긴 해야 하는데…….

학생 1 : 연습 시간을 맞추는 방법이 없을까?

학생 2 : 수요일과 금요일에 연습하는 건 어때? 내가 주말에 바쁘다고 하니 내가 주중 회의 시간을 조정해 볼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연습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너도 시간을 좀 조정해 봐.

학생 1 : 그래. 내가 토요일 오전까지 홍보지를 마무리하면 오후에는 같이 연습할 수 있을 텐데.

학생 2 : 토요일 오전에는 마무리할 수 있겠어?

학생 1 : 그런데 처음 해 보는 일이라 빨리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경험자가 도와주면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너는 경험이 많고 잘 하잖아. 혹시…….

학생 2 : 응? 왜 그래?

학생 1 : ㉣ 혹시 시간이 괜찮다면 홍보지 만드는 걸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학생 2 : 토요일 오전에 일을 끝내면 오후에는 연습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알았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학생 1 : 그럼 수요일과 금요일 방과 후와 토요일 오후에 연습하도록 하자.

학생 2 : 그래 좋아.

학생 1 : 그럼 연습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 이제부터는 강당에서 연습하는 게 어때? 무대 위에서 여러 번 연습을 해 봐야 공연 당일에 떨리지 않을 것 같아. 무대에서 연습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지.

학생 2 : ㉤ 무대에서 연습하는 기회를 많이 갖자는 말이구나. 무대 연습도 꼭 필요하긴 해. 하지만 아직 우리는 화음도 제대로 맞춰 보질 못했잖아. 조용한 연습실에서 우리 둘이 화음을 맞춰 보고 연습도 충분히 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야 무대 위에서도 떨리지 않지.

학생 1 : 그래 좋아.

[A]

[B]

- 대화의 특징

- ☞ 대화는 친구 간의 대화와 같은 '사적 대화'와 라디오 대담이나 회담과 같은 '공적 대화'가 있습니다. 이때 모의평가나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개념은 주로 '사적 대화'입니다.
- ☞ 대화는 다른 담화와는 달리 규격화된 구조를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몇몇 개념이 출제 포인트가 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개념은 '공감적 듣기'와 '부담의 최소화'입니다.
- ※ 공감적 듣기 : '소극적인 들어주기' + '적극적인 들어주기'  
=> 소극적인 들어주기 :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명하면서 상대방이 대화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활동을 위주로 함.  
=> 적극적인 들어주기 : 상대방의 말을 요약정리하면서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 ※ 부담의 최소화 : 상대방이 화자의 발언으로 인해 느끼게 될 부담을 최소화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령형보다는 의문형을 활용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1. ㉠~㉤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질문하는 방식을 통해 상대방의 뜻에 동조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 비언어적 표현과 언어적 표현을 통해 부정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 상대방에게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는 것을 통해 겸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의문형을 활용하여 말하였으나 이것이 자신을 낮추는 것은 아니므로 부적절합니다. (정답)
- ④ ㉣ :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끼도록 표현하면서 부탁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 상대방의 말을 재진술하여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알아 들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적극적인 들어주기에 해당됩니다.

32. [A]와 [B]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학생 1'과 '학생 2'가 서로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의견의 일치점을 찾았다.  
=> '학생 1'은 주중에 연습하자는 '학생 2'의 요구를 수용했고, '학생 2'는 홍보지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는 '학생 1'의 요구를 수용했으므로 적절합니다. (정답)
- ② [B]에서 '학생 1'은 '학생 2'와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 ③ [A]에서는 '연습 시간 축소'의 문제를, [B]에서는 '연습 장소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 ④ [A]에서는 대화 참여자 간의 공동의 문제를, [B]에서는 공동이 아닌 '학생 1' 개인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 화제로 대화하였다.
- ⑤ [A]와 [B]에서는 각각 제시된 안들을 '학생 1'이 종합하였다.